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백석신학대학원생 모임

시국선언 성명서

2025.3.6. (목요일) 오후 4:30

마르크스와 함께 협력한 미하일 바쿠닌이 있습니다. 그는 “사탄은 최초의 자유 사상가이며 세상을 해방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또 다른 동료 프루동은 사탄숭배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악하므로 하나님도 악하다.”고 단언하였으며 마르크스의 절친한 친구 하인리히 하이네 역시 악마숭배자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원수가 나무에 매달려 죽기 전에는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르크스는 어떨까요? 그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을 악마적 주술에 따라 거꾸로 발음하며 ‘울안엠’이라는 사탄숭배 시를 쓴 자입니다.

흔히들 마르크스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의 주창자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자신의 동료들을 팔아넘긴 밀고자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 노예제를 옹호하였고, 영구적인 혁명을 위해서는 테러와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라고 진술한 잔혹한 사상가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크스를 우러러보는 사회주의자들은 과연 칼 마르크스의 개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을 닮고 싫어하는 것을 모방심리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탄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노예제도와 사람을 고문하는 것을 생산적이라고 부르며 동료들을 뒤에서 밀고해서 배신하고 테러와 유혈사태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사람을 알려주고 싶습니까?

시국선언에 앞서서 저희는 혈과 육의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오는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공수처와 맞섰고, 서부지법에서 우리법연구회의 불의한 판사들과 맞섰으며, 과천 공수처 앞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함께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와 함성은 영적전쟁을 벌이는 함성이었고 승리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한 배후 세력 뒤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하나같이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레닌이 그러하였고 스탈린이 그러하였고 마오쩌둥이 그러하였고 김일성이 그러하였습니다. 특히 동쪽 상잔의 원흉인 김일성은 한 술 더 떠서, ‘영생불멸의 위대한 수령’이라 하여서 죽어서도 박제된 상태로 신처럼 떠받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이런 사이비 종교 속에서 참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서도 고통, 죽어서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어찌하여 가짜 평화를 주장하고 종전선언만을 이야기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가짜 평화 코스프레에 속고있는 것입니까?

평화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공산주의자들 역시 평화를

가장하여 뒤로는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듯이 평화의 때와 전쟁할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휴전중이며 그 어느때보다 군사안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북한 정권은 언제든지 핵과 미사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노총 간부가 간첩으로 활동하여 체포된 정황은 이미 드러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정치적 분열을 겪고 있다고 우려는 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양심은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지적인 사람은 결코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똑똑한 좌파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의 모순된 본질을 모른다면 당신은 멍청한 사람이고, 그것을 알고 따른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레이몬드 아론, 『지식인의 아편』) 실제로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거짓 목사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사이비 해방신학을 주장하면서 기도와 함께 ‘투쟁’을 외치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모든 인류의 역사, 문화, 윤리와 정치가 담겨있으며 정치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또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정치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수정헌법 제1조에서 기원한 것으로 기독교는 국가로부터 탄압받아서 안된다는 취지의 법안이었던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감염병 사태 때, 실제 교회발 확진자는 2.7%라는 타종교보다 낮은 수치임에도 30%라는 거짓된 정보를 날조하여 교회의 대면예배를 정부가 강제로 중지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교분리의 원칙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대면 예배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민들의 카톡검열을 비롯하여 민주당에 반하는 유튜버를 음모론자라하며 폄훼하였고 민주파출소를 운영하여 가족, 친구들 할 것 없이 서로 신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추미애 의원이 법원의 영장없이도 통화, 위치, 인터넷 사용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여기가 자유대한민국 맞습니까? 종교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출판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라고 있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우려에서처럼 신앙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간 부적절한 애정행위에 대해 우리는 침묵해야만 할 것이며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받고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는 입법독재 야당에 우리는 강력히 반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면 혹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다면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고 연금받고 대우받고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감옥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대통령이 자기 명예와 생명을 걸고 국민을 깨우는 계엄을 할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좌파들은 내란수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딥페이크 범죄도 서슴치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을 욕보이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짓을 저지르고도

반성은 할 줄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를 보십시오. 그들의 정체성은 친북 또는 친중이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에는 찬성하는 자들입니다.

첫째로 간첩이 어딴냐고 이야기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있든지 말든지 삶을 영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간첩이 아니고서야 이 법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어디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없는 나라는 전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중국은 반간첩법이라고해서, 시진핑과 공산당을 욕하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딘 간첩법 개정으로 인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인이 국내에서 간첩질을 해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습니까?

두 번째로 한미동맹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들입니다. 이는 북한이 허구한 날 외치던 주장입니다. 반미, 반일을 부추기며 자유주의 삼각공조를 무너뜨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나라가 가져와야 한다고 부추기며 미국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왜곡된 역사를 기반으로 미국이 6.25전쟁을 기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방부 예산을 감축하고,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고도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집권하게 된다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존립을 걱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남한 내에서 김일성을 선전, 고무, 찬양해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원하는 단체들과 사유재산과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함께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내란세력이 아니고서야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고 헌정 질서 전복을 시도하려는 내란세력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적이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자입니다.

위에 나열한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색채 외에 다른 주장은 용납하지 않는 파시즘적 성격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도덕적 기준은 무너졌기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과자가 44%나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험치와 양보는 없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보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지금 입법부의 독재는 민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직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도 마다않고 필요하면 편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던 국민들도 이제는 민주당의 환상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법치주의가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이 법치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우리는 평등과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법을 판결해야 하는 판사들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결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가 가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국민의 희생이나 부상도 당하지 않았 습니다. 오히려 우원식과 이재명이 담장을 넘는 헐리우드 액션만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 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는 홍장원의 체포명단은 흡사 지령이를 그린듯한 메모지로 등 장하여 국민들의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애초부터 계엄의 목적이었던 선관위의 부정 선거 의혹은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서버검증 요구를 기각하면서 선관위의 조직적인 선거 조작 은폐의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TOP THE STEAL! 이것은 국민의 주권 침탈에 맞서는 국민 저항의 목소리입니다. 가족기 업이라는 오명은 둘째치고 5개 행정부처를 합하여도 1급 공무원이 13명 밖에 없는데, 선관위 에서만 1급 공무원이 무려 21명이라는 것은 대놓고 국민들을 무지성으로 보는 처사 아닙니 까? 이들은 국민을 속이고 세금을 횡령한 범죄자 집단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구소련에는 ‘지옥’이라는 명칭의 러시아 공산당 전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매우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임수는 혁명을 일으키는 제일 나은 방법이자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몇백만 명을 죽여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혁명의 바퀴에 기름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 니다. 인명의 소중함을 한낱 혁명의 도구로 삼는 공산주의자들의 생명경시 풍조와 거짓말과 속임수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잠언 19:9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 동안 속고 있었습니다. 거짓 인권, 거짓 민주주의, 거짓 국가관, 대통령 탄핵과 관 련하여 드러난 증인들의 거짓말, 중국공산당이 헌법재판소까지 침투하여 자유대한민국의 근간 을 흔드는 일들,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명확한 해명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 어서는 안됩니다.

기독교는 이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를 잃어버리 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양심 마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국민이 일어나 는 것도 바로 그러한 위기의식에서 발원한 것입니다.

애국시민들이여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깨어있습니다!
당신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려는 의로운 국민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릴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적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합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백석신학대학원생 모임